
**Post-2015 Development Agenda: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KDI-CIGI 공동주최 제1차 지역별세미나 @ IPRCC

2012. 6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1. 추진배경	3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5
② 출장지 및 기간	5
③ 출장자 명단	5
3. 출장일정	
① 출장자 주요일정	6
② 제1차 지역별세미나 프로그램	7
4. 출장 주요 내용 정리	
① KDI-CIGI 사전협의회	8
② 제1차 지역별세미나: 주요 내용	8
5. KDI 주최 만찬	
① 만찬 개요	20
② 참석자 명단	20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처음 논의되던 1990년대와 달리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범세계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 MDGs는 2000년 UN 주도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8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발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주도하고 각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개발재원을 마련·배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침 역할을 수행하였음.
- 현 MDGs의 만료시일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UN과 같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11년 제66회 총회에서 MDGs의 성공적 마무리 및 후속개발의제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Options for sustained and inclusive growth and issues for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KDI는 2011년 2월 제네바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국제적십자연맹 등과 공동으로 빈곤감소와 기초적 교육·보건 및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중임.

※ KDI-CIGI는 지난 5월, 2012년 한 해 동안 멕시코 Think-20 정책전문가 국제 회의, 2015년 이후 개발성과지표 설계를 위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거버넌스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전문가 컨퍼런스 등 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Letter of Understanding(LOU)을 교환하였음.

○ 2011년 6월 벨라지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잠정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안)”은 Bellagio Report 형태로 발간되어 현재 다양한 컨퍼런스 및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 2012년 4월 OECD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1차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Bellagio Report를 보완한 Paris Conference Report “12개의 Post-MDGs 잠정 개발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안)”를 발간하였음.

□ KDI-CIGI는 2015년 이후의 개발패러다임에 개도국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협의를 위하여 본 공동연구사업에 총 5차례의 지역별 세미나와 2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포함하였음.

○ 2012년 6월 북경-서울 세미나, 7월 프레토리아, 8월 뭄바이 그리고 9월 리오 세미나가 기획되어 있음.

○ 2012년 10월경, 5차례의 지역별 세미나를 통해 협의된 결과보고서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대한 UN고위급회담(HLP: High Level Panel on Global Development beyond 2015)”[†]에 제출할 계획임.

[†]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영국 카메론 총리,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과 엘렌 존스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고위급회담 패널공동의장(Co-chairs)으로 위촉함으로써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UN 협의과정을 실질적으로 발족하였음.

○ 2013년 2월, "UN HLP on Global Development beyond 2015"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를 벨라지오에서 준비 중임.

○ 공동연구의 결과는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 예정임(2013년 상반기).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 ☐ KDI-CIGI 공동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Post-2015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에 대한 1차 지역별 세미나 참석

※ 현지 주관기관: 중국 국제빈곤감소센터(IPRCC: International Poverty Reduction Center in China)

- ☐ 향후 추진계획 논의를 위한 CIGI와의 사전협의회 참석

① 7~9월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세미나 개최방안

② 6월 12-13일 (Post-2015 개발의제), 6월 14-15일 (Global Governance Gaps) KDI-CIGI 공동주최 서울컨퍼런스 최종 준비

② 출장지 및 기간

- ☐ 출장지: 중국 북경 IPRCC

- ☐ 기 간: 2012. 6. 10(일) ~ 11(월), 출입국 일정 포함

③ 출장자 명단 : 총 2명

소속	성명	직위	출장기간
KDI	임원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2012.6.10~11
	이민하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3	출장일정
---	-------------

□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6.10(일)	12:30	인천출발(임원혁, 이민하)	KE5801
	13:20	중국 북경 도착	
	16:00~17:00	KDI-CIGI 사전협의회	Fraternal Cooperation Hotel
	18:00~	KDI 주최 Informal Dinner	Bianyifang
6.11(월)	9:00~16:00	Post-2015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지역별 세미나	IPRCC 본부
	19:40	북경 출발	KE5804
	22:25	인천 도착(임원혁, 이민하)	

□ 제1차 지역별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요 일정
6월 10일(일) 18:00~	KDI 주최 비공식 만찬
6월 11일(월) 9:00~10:00	세션1: Welcome and Introduction 환영사: Dr. Huang Chengwei (IPRCC) 공동연구사업 소개 및 진행사항 공유: 임원혁 (KDI) 성과지표 설계 관련 도전과제: Dr. Barry Carin (CIGI)
10:10~12:10	세션2: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성과지표 논의(1) 좌장: Dr. Mukesh Kapila (HCRI) 1) 최소임금 및 생활환경 보장을 통한 빈곤감소: Prof. Xiaoyun Li (IPRCC) 2) 식량안보 및 수자원: Prof. Fengying Nie
12:10~13:30	IPRCC 주최 공식 오찬
13:30~15:30	세션3: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성과지표 논의(2) 좌장: 임원혁 (KDI) 3) 사회참여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 제공: Dr. Barry Carin, Mr. Zhao Yuchi 4)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 구축: Dr. Mukesh Kapila, Prof. Xin Lu
15:30~16:00	세션4: Conclusion 성과지표 협의: Prof. Daniel Bradlow (프레토리아 대학교) 폐회사: Dr. Richard Carey (OECD), Dr. Janki Andharia (Tata Center), Dr. Cheng Enjiang (IPRCC)

① KDI-CIGI 사전협의회: 향후 추진계획

지역별 세미나 개최방안

- 프레토리아 대학교 주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진행될 7월 제3차 지역별 세미나를 아프리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
 -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협력 전문가를 초청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KDI와 CIGI가 분담함.
- 타타 재해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될 8월 제4차 지역별 세미나 준비를 위한 연구소장과의 Conference Call 일정 조율
- 아시아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차 지역별 세미나인 서울 세미나 이후 연이어 개최될 KDI-UNDP 공동주최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 의제”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Global Governance Gaps 컨퍼런스 최종 준비

- 캐나다 대사관 주최 공식 오찬 최종참석자 조율 (총16인)
- 캐나다에서 개최될 하반기 회의 일정 및 프로그램 조율 (2012. 11월 예정)

② 제1차 지역별 세미나

개요 및 배경 소개: 임원혁 실장(KDI)

- 오늘 북경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 개최될 지역별 세미나는 2011년 2월 제네바의 기획회의와 6월의 벨라지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잠정안을 기초로, 지난 4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12개 목표와 성과지표의 수정·보완 작업을 목표로 함.
- KDI와 CIGI는 다양한 국제기구,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과 협력하여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즉, 개발의제 선정에 요구되는 개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나 방향설정 또는 그 안에

반영되어야할 철학 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상당부분 technical한 논의를 지향함.

-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 도출되어 지역별 세미나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12개 목표와 성과지표는 잠정안으로써 오늘 참석하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함.
- 본 지역별 세미나에서는 지정된 발표자의 짧은 발제를 시작으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에 긴 시간을 할애하고자 함. 참석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파리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도출된 12개 목표 중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4개 목표는 현 MDGs 1번에 해당하는 빈곤과 2번의 교육 그리고 4~6번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분야임.
- 현 MDGs의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빈곤과 취업’ 그리고 ‘식량안보와 수자원’에 대한 성과지표 논의로 세미나를 시작하고자 함.
- 현 MDGs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판단에서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서는 ‘교육’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특히 성인 이후의 사회참여 및 소득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약자의 목소리(Voice of the Poor)에서 나타난 ‘일자리에 대한 요구’에 대한 선결과제를 다루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현 MDGs가 강조하고 있는 보건·위생 분야의 “유아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그리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등 세 가지 목표영역을 하나로 통합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 구축”에 대한 성과지표 논의를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함.
- 그 외에도 양성평등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목표 부재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함. 그에 대한 논의는 이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양성평등), 프레토리아(국제개발협력 관련 목표), 뭄바이 그리고 리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 MDGs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즉, MDGs의 한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 이상적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와 측정가능한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도 본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임.



측정가능한 목표 설정에 대한 도전과제: Barry Carin 선임연구위원(CIGI)

-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세미나에서 논의하고자하는 내용을 정의하고자함.
 - 'Goals'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때, 'Targets'는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이며, 'Indicators'는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가늠하는 성과지표임.
-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는 개발의제 방향 자체에 대한 논의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음. 그 이유는 MDGs와 같은 범세계적 합의에 반영된 방향으로 전 세계 인구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과지표이기 때문임. 이는 학생의 공부패턴 중심에 학점체계가 있다는 간단한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음.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학창시절만 돌아봐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함.
 - 즉, 교수가 수업을 의도한 바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목표, 범위 및 학점체계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듯이, MDGs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하며, 간결하며, 단순명료하고, 실현가능한 동시에 국가상황에 맞는 성과지표가 각국 정부를 통하여 개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 MDGs의 후속개발의제는 최대 10개의 목표와 최대 20개의 목표치로 디자인하고자 함. 이는 개발의제 및 성과지표를 한 페이지에 담아 이행주체의 집중도를 고취하고자 함.
- 그러나 측정가능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중요한 모든 것이 측정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아이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토론

- [Mukesh Kapila] 지난 4월 파리 컨퍼런스를 통해 도출한 12개 목표를 더 통합한다면, 목표 하나당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짐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각 의제에 대한 성과지표도 UN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역할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다양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2015년 이후의 성과지표를 현재 MDGs와 달리 국가맞춤형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성과지표 메뉴판'을 준비해야함. 각 국가의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많지 않으므로 우리는 동일한 목표(goal)에 대한 목표치(target)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indicator)를 제시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중요조건인 측정가능성이 항상 정량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200여 국가에 적용될 글로벌 거버넌스인 MDGs는 보편적인 동시에 개별적(tailor-made)이어야 실효성이 있음.
- [Xiaoyun Li] 지역별 세미나의 주최자인 "Bellagio Team"이 올 가을에 있을 UNGA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난 4월 파리 컨퍼런스에 이어 오늘까지도 Team 내 각자의 이해에 편차가 있다고 보임.
- 중국인 입장에서 볼 때,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지속가능한 성장임.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성장을 통한 기아 퇴치라는 목표 하에서 극빈곤층에 대한 개선책 대신 중상층 확대전략을 주로 도입한 결과, 중국은 현 MDGs 중 빈곤관련 목표를 달성하였음.

Poverty and Employment: 중국농업대학교(CAU: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1) 발표내용 요약

- 현재 MDGs는 절대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① 1990년과 2005년을 기준으로 절대 빈곤층(\$1.25/일)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50% 감소를 달성한 지역은 아시아에 국한됨을 알 수 있음.
- ② 취업률을 보면 달성한 지역이 없음. 오히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실

업률은 1999년 대비 동일 수준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③ \$2/일 빈곤층이 인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은 빈곤감소 분야에
서 더 큰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을 암시함.

○ 많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곤층 감소는 상
당부분 개인의 안정적 수입확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MDGs 이후의 개발의제 성과지표 설계에서는 절대빈곤층 감소뿐만
아니라 Poverty Gap Ratio* 또는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가 적용
되어야 함. 취업 분야에서는 정규·임시직, 성별 임금 차이 및 연금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이 요구됨.

* 빈곤갭비율(PGR: Poverty Gap Ratio):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또는 가구)
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눈 값임.

* 다차원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비교적 새로운 지
수에 속하는 MPI는 아마르티아 센의 “빈곤과 사회적 가치의 박탈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의 필요성”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
엔개발기구(UNDP)와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개발계획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음. 이는 단순 소득보다는 가계차원의 보다 넓은 개념
의 빈곤을 의미하는 새로운 빈곤지수로, 빈민층 지원을 위한 개발자원 배
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토론

○ [Cheng Enjiang] 취업분야 관련하여 정규·임시직에 대한 구분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실업률 및 under-employment 비중도 고려되어야함. 한 예로, 농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모두 충당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임원혁] GINI Coefficient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MDGs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위 20% vs. 하위 20%와 같이 Quintile 측정법
도입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성과지표에 복합지표(Composite Index)를 포함할 경우, 상충하는 구성요소
로 인하여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복합지표의
세부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추천함.

○ [Janki Andharia]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에는 세계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사회가 분명히 존재함. 그리고 그런 community의 일원들은 달러지폐를 본 적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극빈곤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런 사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Richard Carey] 이러한 성과지표에 담긴 숫자의 의미를 해독할 때, 우리는 거시경제지표도 함께 고려해야함.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측면에서, MDGs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되어야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역량개발이라고 볼 수 있음.
- [Zhao Yuchi] 인권과 사회가치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되어야함. 경제성장 과정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개선되고 해결되는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락되고 희생되는 부분 역시 분명히 존재함.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성장 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임. 이러한 내용이 금번 IPRCC 연구보고서(책자)에 담겨 있음. 참고가 되길 바랍.
- [Daniel Bradlow] 단순한 성과지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성과지표가 담아야 할 철학적 의미와 추구되어야할 이상에 대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있음. 물론, 인권·가치·정의·도덕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성과지표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특히, 12개 목표 중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져가기를 희망함.
- [Barry Carin]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내용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반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 내 거리 길이를 두 배로 확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 그게 통계치의 태생적 한계임. 따라서 Proportion과 같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통계 오류를 잡아줄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
- [Janki Andharia] 측정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경제시스템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기를 기대함.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알고 있음. 그런 근본적인 오류를 ‘관행’ 또는 ‘대안부재’라는 이유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경제성장이 사회에 미치는 복합영향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없는 셈 칠 수는 없음. 인도와 중국은 고속성장 국가임. 그러나 그 성장을 견인한 공장 직원들은 부품화되었다고 느끼며 인간존엄성에 위기를 느끼고 있음. 그러한 행복·만족감·인간존엄성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이를 총체적으로 간과하는 논의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세미나가 성과지표 설계에 대한 자리라고 할 때, survey를 통한 통계치를 기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만큼 더 고민한 후 다른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음.

- [임원혁] 성과지표 설계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수치 대비 50% 감소와 같은 목표치 설정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음. 또한, “웰빙”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행복감·만족감 관련하여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survey된 자료가 있음. 소득과 웰빙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음. 따라서 현존하는 survey 통계자료를 활용한 성과지표 설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개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절대적 소득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Xiaoyun] 취업과 빈곤감소의 관계는 Input(일자리)-output(소득증가)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두 분야의 성과지표는 input/output으로 분류되어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음.
- [Mukesh Kapila] 마릴린 먼로의 명언이 생각남: “난 가난해서도 불행했고 부자가 된 후에도 불행해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것보다는 부자로 불행한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감·만족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Food Security and Safe Water: UN in China(MDGs Achievement Fund)

1) 발표내용 요약

- 빈곤 및 기아퇴치는 현재 MDGs의 첫째 목표이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임: 1990년 19.1%였던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는 2005년 기준 6.9%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10대 빈곤국가 중 하나로써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의 추가적인 노력은 2015년 기준 MDG1 달성수준을 더욱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임.
- 식량안보는 절대적 공급량, 유통체계 및 Accessibility 모두가 확보되어야만 달성이 가능한, 매우 포괄적인 분야임.
 - 농지에서 공급량이 확보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제때 배송될 수 없다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영양(Nutrition)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특히 아동이 성

장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면 그 역시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물의 경우, 식용수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즉, 수자원 확보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설비 구축이며, 실수요자에게 공급가능한 안전한 식수공급망 구축임.
- 마지막으로 식량안보의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임. 자연재해(가뭄·홍수·지진 등)로 인하여 온 국가가 기근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 역시 취약한 식량안보이며, 공급자의 가격변동치로 인한 소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2) 토론

- [Mukesh Kapila]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개인의 정상적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열량·물섭취량·필요영양소 등은 밝혀졌음. 다만 문제는 많은 인구가 그 최소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음. 이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할지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어야함.
- [Xiaoyun] 취업을 통한 소득증가가 빈곤감소에 영향을 미치듯 식량안보 확보의 근본적 해결책 역시 취업을 통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식량안보를 후속 MDGs의 독립목표로 세우는 것보다는 취업과 빈곤감소 항목에 포함하여 ‘빈곤감소’라는 한 개의 총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
- [Mukesh Kapila] 식량안보 분야가 독립항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영양부족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영양과다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음. 영양부족이 빈곤의 결과이듯 영양과다는 의료·보건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빈곤에도, 의료·보건 항목에도 포함될 수 없음.
- [Richard Carey] 영양과다보다는 영양부족이 범세계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생각함. 5세 이하 아동의 영양부족이 개인의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아동의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은 중요함. 또한 위생이 수백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독립항목으로 유지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 [임원혁] MDGs와 같은 범세계적 합의가 각국의 사회복지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와 위생을 소득증가를 통한 빈곤감소라는 측

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 [Niina Maki] 오늘의 논의는 공여국 중심의 개발체제를 공동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함. 전통적인 식량안보가 아니라 변화한 세계경제체제가 반영된 '안정적 식량·위생 확보' 측면이 강화된 성과지표를 설계한다고 본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장쇼크와 소비가능한 식량공급 확보(가격)와 같은 분야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Barry Carin] 캐나다의 경우, 소득은 분명히 증가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치를 상회함에 따라 주택공급가격이 문제화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평범한 캐나다 월급쟁이의 소비구조에서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는 빈곤감소·소득증가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함.
- [Daniel Bradlow]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정부가 WHO에서 제시한 개인의 물 일일사용량을 지침으로 삼아 각 가정에 개인 권장량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음. 상당히 인도주의적이라고 조명되었던 이 조치는 실제 이행 이후 잔인한 조치로 판명되었음: 각 가정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괄적 조치로 인하여 무료공급량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높은 요금을 감당할 수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단수를 경험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험 역시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Education: Barry Carin, Zhao Yuchi

1) 발표내용 요약

- 현재 MDGs 제2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은 초등교육에 제한되어있음.
 - 문맹률 지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취학률·진학률·출석률과 같은 input 개념의 지표에 치중되어 교육의 질, 효과 등과 같은 output에 대한 측정이 불가함.
- 성과지표가 평균치를 도입함으로써 양성불평등(성별지표는 포함되었음) 외 사회내의 불평등 존재여부를 알 수가 없음.
- 2015년 이후의 교육 관련 개발의제에 대한 성과지표는 input(취학률·진학률·교육비용·학교재원 등), 교육과정(졸업률 등), output(문맹률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효과(취업률, 소득증가치 등)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지표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가장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임. 접근성, 정치적 결단을 통한 의무교육 확대 등은 교육 관련 지표 중 가장 측정이 용이한 부분임. 교육성파에서 부각되어야 할 '교육의 질'을 측정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정량적인 방법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함.

2) 토론

- [Richard Carey] 당연히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바로 교육의 질임. 그리고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선생님의 역량임. 핀란드와 한국과 같이 작은 국가가 DAC 회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교수들의 역량이 뒷받침된 인적자원임. 따라서 선생님 능력 배양에 관련된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할 것임.
- [Daniel Bradlow] 교육의 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사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교사연수임: 교사의 역량 역시 배양되어야 하는 항목이며, 특히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일어나야할 초등교육에 참여할 교사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discipline이 필요함.
- [Nie Fengying]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임. 중국의 예만 봐도 집안경제가 악화되거나할 경우, 여자아이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남자아이보다 많은 것이 현실임.
- [Mukesh Kapila] 교육의 질에 대한 성과지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짐. 교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한다면, 상당부분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도 기대됨. 역으로 질문해보면, 교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전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Xiaoyun Li] 모든 항목을 근본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지표설계는 불가능해질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가장 큰 효과(impact)는 취업률과 소득증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명제에서 살펴본다면, 교육에 관련된 성과지표는 교육을 받는 학생 수, 양성평등, 의무교육 유무 혹은 필수이수 과목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output으로는 취업률과 소득증대 비중일 것임.
- [임원혁] 교육과정 이수 후의 삶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열심히 공부했을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의 교육열이 열심히 공부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 계급화 사회의 교육열 대비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교육의 coverage와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사회가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할 것임.

Health: Mukesh Kapila

1) 발표내용 요약

- 보건·위생 분야 관련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현 MDGs의 특정질환에 초점(Silo Approach)을 맞춘 수직적 접근법(Vertical Approach)이 아닌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도입해야 함.
 - 특정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MDGs의 경우, 범세계적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Holistic Approach를 도입함으로써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반영되어야 함.
-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선진경제국은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음. 그 결과, 많은 사회가 아동보다 어른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선진경제국의 과제를 모두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됨.
- WHO는 Health를 질환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웰빙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즉, 2000년의 MDGs와 달리 단순한 생존율이 아니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의 삶에 대한 지표가 고

려되어야할 것임.

- Healthy Life Years of Expectancy at ages 0, 50, 65 years as the ultimate impact level. 자살 및 사고 역시 포함되어야하는 것은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악화로 인한 결과이며, 사고는 육체적 건강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임.
- 또한 부모의 건강상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른의 면역상태 등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야할 것임.
- 오늘날 각국의 10대 사망원인은 모두 상이함. 따라서 범세계적 목표를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사회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정의하고, 각국의 10대 사망원인에 대한 목표치(Target)를 제시할 것을 제안함.

2) 토론

- [Cheng Enjiang]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시스템 등 국가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할 것임. 이러한 시스템 부재 하에서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곧 가난해진다는 뜻으로 귀결될 수 있음.
- [Lu Xin] 각국의 10대 사망원인에 대한 목표치(Target)와 '사회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는 목표(Goal)에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개도국의 경우, 10대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 구축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Richard Carey] 건강보험제도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건 관련 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에 동의함. 의료시스템이 구비되었더라도 실수요층이 접근할 수 없다면(Accessibility) 그것은 보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5

KDI 주최 만찬

① 만찬 개요

□ 장소: Bianyifang Restaurant

※ 숙소 근방의 장소로 현지 주관기관인 IPRCC에서 예약진행

□ 일시: 2012년 6월 10일 18:00

□ 소요비용: RMB 2,183.00 (≒ 398,000원)

② 참석자 명단

	이름	직함
1	Dr. Janki Andharia	Professor, Tata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	Dr. Daniel Bradlow	Professor, University of Pretoria
3	Mr. Richard Carey	Former Director, OECD DCD-DAC
4	Dr. Barry Carin	Senior Fellow, CIGI
5	Dr. Huang Chengwei	Deputy Director, IPRCC
6	Mr. Daniel Matthew Harris	ODI China
7	Dr. Mukesh Kapila	Former Undersecretary General, IFRC
8	Dr. Xiaoyun Li	Professor,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9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10	이민하	KDI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